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막이 오르면, 한국 1971년 겨울, 청회색의 음울한 하늘을 배경으로...

하소서. 이것은 1973년 원주 카톨릭회에서 초연된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 머리다.

금관의 예수

겨난 거지, 한센인, 창녀들과 이들을 도우려는 수녀, 이들을 등쳐먹는 순경과 사장, 이들을 외면하는 대학생과 신부...

2009년 12월 하순, 용산참사의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 거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와 수녀, 스님, 문인, 학생...

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는다. 그들은 나의 제자임을 자랑한다. (...)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박해받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스런 외침에 귀를 막는다...

매서운 추위 속에 찾아온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김민기가 작곡한 '금관의 예수' 들으며 용산참사의 희생자들과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해야겠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기성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지역경제 또한 수출 감소와 내부부진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광주시 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 및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경제회복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광주 금융소외자 희망의 빛 '빛고을론'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특히 한 번의 실수 또는 경제적 좌절로 신용불량자의 명을 쓰고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받는 금융소외자의 경우가 그렇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모두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감자와 같은 금융소외자 약 2천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연리 2~4%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면접을 한 김명수(가명) 씨는 외병 중에 있는 아내의 병원비에 쓰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다가 결국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단체장과 열린 마음으로 금융소외자들을 생각해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 사업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고, 희망의 빛이 되고, 삶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바람직한 선거상 말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을 한해 공명선거강의 및 통선거 근절을 위한 홍보를 위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음 속에서 낙후된 채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들이었다. 똑같은 국민들인데 너무나도 다른 우리 국민의 양면성에 의문이 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는 한번 얻어먹어 봐야 하고 굶픔·향응과 자신의 표를 맞바꾸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주는 것은 받고 투표는 올바른 사람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 사람이 많았다.

▲관병주·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기고

이미심



나는 현재 H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만든 일자리다. 코디네이터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막상 참여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요구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초등 방과 후 교실 활성화 하려면

도와 프로그램 평가 등을 중요내용으로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전교생 7백여 명중에 3백여 명이 설문에 응했다. 방과 후 교실 학생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학생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부모에게 출결확인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수업의 질과 내용을 떠나 출결 여부를 궁금해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의 출결에 엄격하고 이에 따른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내에서 전문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실 참여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프로그램이 학생의 흥미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도가 아쉬움이 크다. 저렴한 교육비로 전문강사와 수업한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수준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사교육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인구유입요인이 적어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특성상 사교육의존은 필연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분야 어떤 일이든 이제 평가는 파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위의 만족도 조사도 수요자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데 있을 것이다. 방과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방과 후 교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아동의 정서함양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소통과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법 빚 독촉 부추기는 채권 추심법 수정해야

일전에 친구가 모 단지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2천만 원을 빌린 후 이걸 제때 갚지 못하자 연리가 몇백 퍼센트씩 올라갔고 지금은 가혹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빚독촉은 문제삼을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방문 독촉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친다는 것이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나 급작스런 변고로 인해 돈 갚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일이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여야 정치력 발휘해 예산안 연내 처리해야

여야의 경쟁 대처로 예산 정국이 과격으로 치달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부터 '4대강 예산 사수'라는 기조 아래 예산안 자체 심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접거를 5일째 이어가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 장마철 이전까지 4대강 사업을 마쳐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팽박한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야당과의 타협과 절충은 기대하기 힘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서울간 본회의를 개최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만 믿고 연내 예산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교육·의료·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주택 20만호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광주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한 중소기업이 친환경 주택 20만 호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일을 중소기업이 그것도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온갖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사시킨 것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주택 20만호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은 벽면재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1㎡당 연간 난방용 기름 사용량이 1.5ℓ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를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결합해 중국대륙에 진출한 것이다.

이 같은 한국스치로폴의 쾌거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기술력 향상에만 전념해 온 기업이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모 대표이사는 지난 25년 동안 단절재만을 생산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한다. 단절재 합성 블록인 '인슈블'은 벽면재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1㎡당 연간 난방용 기름 사용량이 1.5ℓ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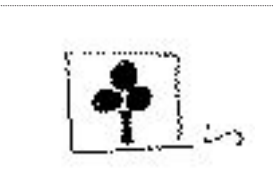
한국스치로폴의 중국 진출은 지방 중소기업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열악한 여건만을 탓할 게 아니라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훌륭한 사례인 것이다.

無等鼓

연말이면 눈에 띄는 익숙한 풍경이 있다. 양복 깃에 빨간 '사랑의 열매'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무는 것과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다.

'가까이하네'라는 붉은 깃털이 들어간 상징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열매 가격은? 사랑의 열매는 파는 게 아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기부하는 사람에게 이웃사랑 실천의 증표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를 실천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는 이웃사랑의 정표로 자리 잡았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산열매를 형상화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산림청은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하면서 사랑의 열매와 닮은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랑의 열매는 붉은 색의 열매 세 개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열매는 나와 가족, 이웃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 열매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더불어 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따뜻한 피색의 열매 세 개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열매는 나와 가족, 이웃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 열매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더불어 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은 빨간 색의 한 손으로 빨간 무지개를 들고 있는 심벌을, 일본에서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내선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제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2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